

# 1210년과에서 만난 사람들

---

라운아트티 15기 양곤팀 최종보고서

허성주, 이난희, 송진우, 박은정

## 목 차

아티스트 및 기관소개

활동보고

350PPM

활동영상

개인소감

아티플 및 기관소개

# 아띠들을 빛 기관소개



오춘기 **허성주**



미얀마 유쟁이 **이난희**



현지인  
**박은정**



강남, 혼자서도 잘 남  
**송진우**

# 단원 및 기관소개



## Yangon YMCA, MYANMAR

1894년 설립-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중.

넬서리, 마이크로 파이낸스, 클리닉 센터, 스포츠,  
게스트하우스 등  
약 120여명의 직원들로, 다양한 사업을 운영.



양곤 YMCA  
우파냐 총장님



라온아띠 담당  
산드라 간사님



현지담당 스태프  
솔리

활동보고

## 활동보고



아이들' 널서리 /쉐베따 초등학교

아주머니들' 마이크론 파이낸스

가족들' YMCA 게스트하우스 사업

미얀마 친구들' 아띠클럽

우리동네 사람들' 홈스테이

# 아이들' 널서리



**마(북) 오피라바 지역**



**양곤YMCA 내**



**흘랑 따 야 지역**

**3-5세 , 25-60명의 아이들  
선생님 3-4명**



아이들' 놀이



“색다른 수업, 친구와 함께하는 수업”

아이들' 놀이

“색다른 수업, 친구와 함께하는 수업”



#재활용하다.

신문지로 모자와 옷 만들기

페트병 바람개비

아이들' 널서리

“**색다른** 수업, 친구와 **함께하는** 수업”

2인 3각

풍선체육수업

림보놀이

#친구와 **함께**하다.



아이들' 널서리

“**색다른** 수업, 친구와 **함께하는** 수업”



#신나게 놀다. Or  
놀며 배우다.

# 아이들' 슈베르타 초등학교



**그 곳도, 이름도, 아이들도 예쁜 '풍지짜웅'**

빈민촌에 위치한 사찰 내 초등학교

선생님 6명

학생 약300여명/ 6-13세

# 아주머니들' 마이크로 파이낸스



## 흘랑 따 야 그리고 모우번 지역

우리가 본 '마이크로 파이낸스'는

개발도상국 중심의 소규모 대출 금융상품이 아니라, **마을지역 주민들의 삶**

# 가족들' YMCA 게스트하우스 사업



## 매주 월요일, 게스트하우스 일일스텝

'직원과 투숙객' 이 아닌, '친구와 가족' 으로의 관계 전환.

주요 활동 : 리셉션, 하우스 키핑, 주방 보조 등

## 미얀마 친구들' 아띠클럽



**모든 게 달라도 그래도,  
우린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다.**

미얀마 청년들과 '우리'로 살아갔던 시간.



## 우리동네 사람들' 호스태이



### '도시'에서 '마을'로

별과 사랑, 아이들이 넘치는 마을, 베이네빈  
 미얀마, 산주, 께로  
 해발 1300m에 위치한 산속 마을.  
 100가구, 300여명이 모여사는 북작북작한 마을.

# 우리동네 사람들' 홈스테이



## 마을에 스며들다

너무나 다른 삶.

환경적인 것이 일상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.

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

잊을 수 없는 우리 동네, 아이들, 사람들.

350PPM

350PPM



## 350PPM 캠페인 with ATTI CLUB

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 
**400PPM** → **350PPM** 으로 줄여나가자는  
전지구적인 환경캠페인

350PPM

STEP 1 사전조사  
미얀마사람들의 '환경' 에 대한 인식



STEP 2 계획수립  
어렵지 않게 다가가자.  
기본적인 '환경'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.  
#캠페인송제작 #Save\_the\_Earth

STEP 3 캠페인 활동  
350PPM 알리기  
쉽게 다가갈 수 있는 '실천막속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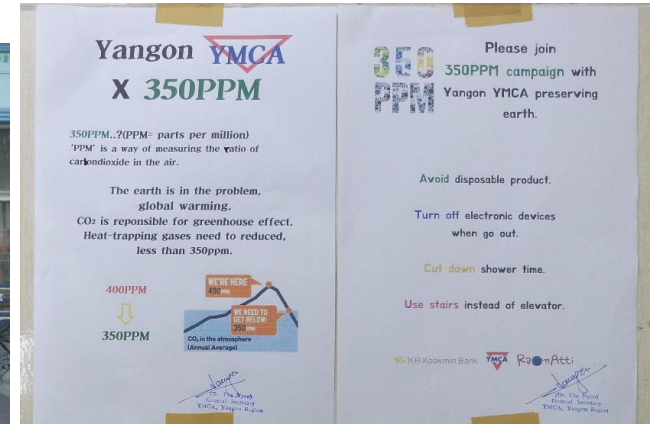


350PPM



마하반둘라 공원에서, 미얀마시민들을 대상으로.

350PPM



양곤YMCA 그리고 주변 상가에서,  
정부/기관분들,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.

350PPM







350PPM

---

캠페인 영상

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



허성주



박은정



이 난 희



송진우

즐거웠습니다.

---

허성주, 이난희, 송진우, 박은정